

포해피니스 강아지 입양자 가이드



<목차>

0. 필요준비물
1. 안전관련 안내사항
2. 적응을 돕는 방법
3. 무엇을 어떻게 먹여야할까요? (음식문제)
4. 산책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5. 안전산책으로 가는길
6. 동물등록 변경신고(소유자변경) 절차 안내
7. 기타 케어 관련 안내사항

첫날~3일정도 낯선환경 적응기간으로 배변실수를 하거나 배변을 하지 않거나 사료거부가 있을 수 있으나 정상입니다. 1주일까지 적응 기간으로 조급해마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세요!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궁금한점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0. 필요 준비물

1. 안전 준비물 = 사전 주문 및 설치 필요
 - * 내장 인식칩 : 기존 인식칩에 보호자 정보 변경 필요
 - * 인식표 목걸이
 - * 안전문 : 현관문 등 설치할 공간의 너비를 측정 후 주문
 - * 홈캠
2. 물그릇/밥그릇
3. 사료와 간식
 - * 기존에 먹던 사료를 2주 분량으로 드립니다.
(배탈을 방지하기 위해)새 사료와 함께 섞여서 일정기간 먹여주세요.
4. 배변패드
 - * 아이의 특성상 실외배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5. 장난감
 - * 아이 체형에 비해 너무 작은 장난감 또는 단추 등이 달린 인형 등은 삼킬 위험이 있습니다.
6. 케어 용품 : 빗, 발톱깎이, 샴푸 등
 - * 아이의 모량에 따라 적합한 빗이 달라집니다.
 - 단모종 : 퍼미네이터, 패스룸 힐링브러쉬
 - 풍성한 모종 : 구름빗, 진도빗
7. (동절기일 경우) 옷
8. 하네스,(목줄) 리드줄
9. 켄넬
 - *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위해 지붕이 있는 하우스가 필요합니다.
이동에도 용이한 켄넬을 추천드립니다.

1. 안전 관련 안내사항

@ 필수 착용품

안전의 가장 중요한 기본 상식은 **반려동물 역시 동물**이라는 점입니다.
믿지 마세요!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어요



1. 인식표

인식표는 365일 24시간 착용합니다.
목욕 때 뺐다면 잊지말고 바로 착용해주세요!

2. 하네스와 리드줄

하네스는 H형으로 몸에 꼭 맞게(손가락 2~3개 정도)
리드줄은 자동 리드줄이나, 얇은 끈 리드줄 사용 금지
(탈출 위험성이 매우 높아요)



3. 안전문

철저한 문단속과 안전문은 사고예방에 필수예요!
청소, 배달, 택배 수령 시 잠깐의 문열림에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아이 키에 따라 안전문 높이를 선택하세요!

@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1. 청소 택배 등으로 문 열어두었을 때

아주 찰나의 순간에 반려동물이 문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문을 열어둘 경우 반려동물은
케이지 또는 방 안에 안전하게 보호해주세요.

2. 아이를 맡길 때(동물병원, 카페, 호텔 등)

인식표(목걸이)와 하네스를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장소의 탈출 위험 여부를 확인해주세요(울타리, 안전문)
위탁처에 아이의 탈출 위험성을 다시 한번 안내해주세요



3. 이동가방, 개모차에 탑승할 때

사용 전 아이가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해주세요
사용 시에는 이동가방, 개모차와 리드줄을 연결해주세요

2. 적응을 돕는 방법

@ 맞이할 준비

- * 거실같은 넓은 공간보다 조용한 방에 물/사료/장난감/배변 패드와 함께 공간을 마련하기.
- * 만약 다른 반려 동물이 있다면 공간 분리하여 초기에는 직접적인 만남 방지하기.
(기존 반려견과 첫 만남을 가진다면 집이 아닌 밖에서)
- * 쓰레기통,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및 각종 물건 등을 닿을 수 없는 곳에 미리 치워 안전사고 예방하기

@ 적응 단계에서는..

- 1) 빨리 친해지려고 무리하게 다가가기보다는, 강아지가 스스로 다가오길 기다려 주기
- 2) 집 이곳 저곳을 천천히 탐색할 시간을 주기
(밥과 물, 배변패드 위치 등)
- 2) 강아지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정해주어 스트레스 및 두려움을 최소화
- 3) 만약 강아지가 많이 겁을 먹었다면, 밥/간식을 분리된 공간에서만 먹을 수 있게 해주기
- 4) 밥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급여해 주시고 15분 뒤 치우기

3.무엇을 어떻게 먹여야 할까요?

- 급작스러운 사료 변경은 배탈이 날 수 있어요. 배탈이 나지 않게 함께 동봉한 사료(2주 치)를 새로 구입하시는 사료와 조금씩 양을 섞어주세요.

@ 식사 안내

- 1) 사료 정량을 체크하되, **아이의 몸 상태에 따라** 가감하기
- 2) 간식을 많이 준 날은 사료를 덜 주는 식으로 양 조절하기

petdoc+ 펫닥

강아지 비만도 측정법

※ 지나치게 마르거나, 비만의 경우 건강문제로 연결돼요 (고지혈증, 관절 등)

특히 사료나 간식은 열량이 높기 때문에 비만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매우 마름	마름	적정	과체중	비만
허리 부분이 지나치게 말랐어요	허리뼈, 골반뼈가 돌출돼요	적당한 허리선이 보여요	허리선이 뚜렷하지 않아요	일자 몸통으로 허리선 구분이 어려워요
너무 마른 강아지	마름 강아지	이상적인 강아지	풍성한 강아지	비만인 강아지
갈비뼈와 골반뼈가 멀리서도 보여요	지방층이 없고 갈비뼈가 쉽게 만져져요	가장 이상적인 몸매예요	지방이 많아 갈비뼈가 잘 만져지지 않아요	꼬리 아랫 부분이 매우 두꺼워요

@ 금지 음식 안내

- 1) 사람 음식은 염분이 있어 강아지에게 몹시 해로워요!
- 2) 애타게 쳐다본다고 해서 사람음식을 주어선 절대 안돼요!

먹을 시 위험한 음식 : 삼겹살, 포도, 과일 씨앗, 카페인

이밖에 주어선 안되는 음식

베이컨	염분(소금, 후추)	양파	초콜릿	닭뼈
끈약	오징어	문어	단과자	햄
생선뼈	표고버섯	땅콩	고추	

4. 산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전한 산책

1) 도착 후 1주일[☆]은 사고 예방을 위해 산책 금지

* 과도한 배변 지연/건강상의 이유로 상의 하에 실외배변 외출 가능

2) 첫 산책은 반드시 적응 후, 안정된 상태일 때 시작

* 산책을 시작할 때는 밖이 아닌 실내에서부터 천천히

* 산책 도구 사이즈가 딱 맞는지 사전 확인 필요

3) 초기 2개월[☆]은 산책 시 특별 주의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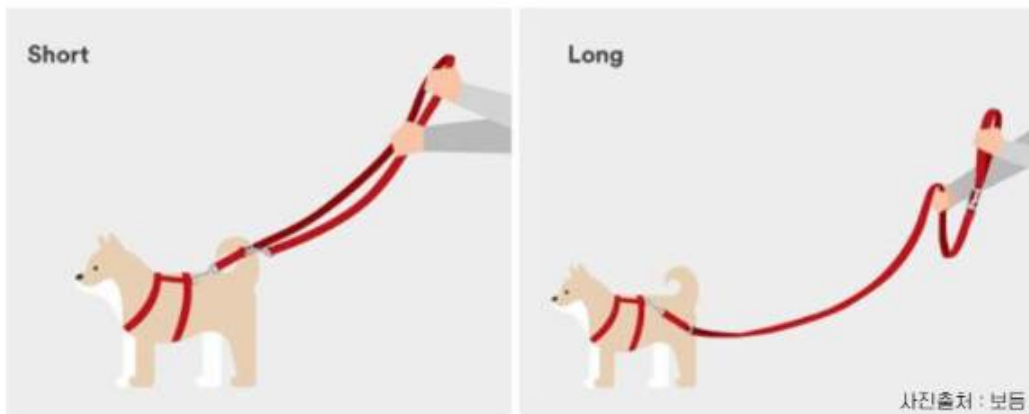
* 목줄 & 하네스 이중 리드줄 착용

* 애견운동장 내 리드줄 착용 필수

* 아이 성향 별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오래/멀리 나가는 것 < 안정적/긍정적인 산책

@ 하네스&리드줄 사용법



1. H형 하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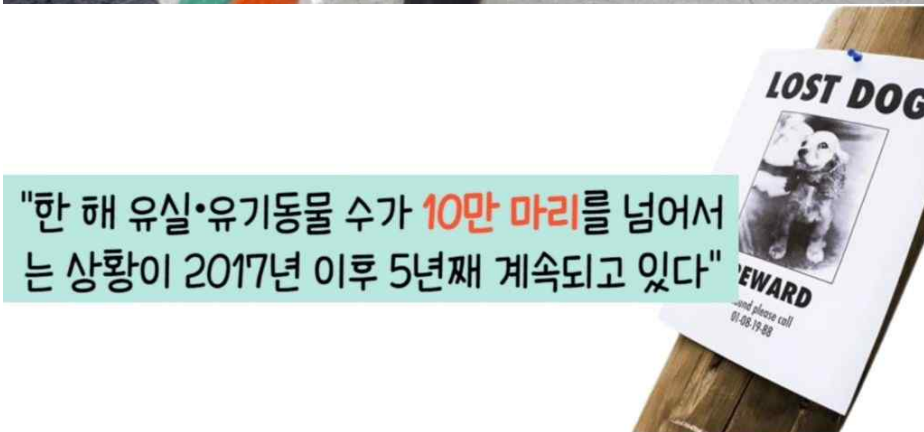
둥근 목구멍으로 D링이 등으로 오도록 해 얼굴을 통과시켜주세요. 그리고 벨트를 각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등 뒤에서 버클을 채워주시면 끝!

하네스 길이를 조절할 땐 손가락 두세마디가 들어갈 정도로만 여유공간을 주세요.

2. 리드줄

리드줄을 손목에 끼어 두번 꼬아 잡거나, 엄지손가락에 한번 낀 후 손바닥으로 다시 감싸주세요. 그리고 다른 손으로 컨트롤 합니다. 산책 시에는 두 손을 모두 사용해주세요!

5. 안전산책으로 가는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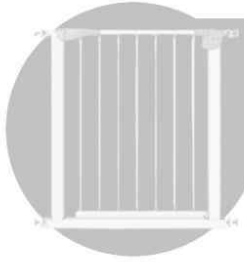


유실 예방 3종 세트



목걸이형 인식표

동물등록번호는 법적 의무, 하지만 유실 시 '등록번호'는 큰 효과가 없음. 바로 **연락처 확인이 가능한 목걸이 상시 착용 필수!!**
 졸보일수록 인식표 크기는 클수록 좋음(연락처가 앞쪽으로)



중문 및 안전문

보호자 외출 및 문열림 시 안전사고를 막아주는 장치. 똑똑한 동물들은 **가자 손잡이를 쉽게 열 수 있어 안전문 설치 필수!!**



방묘문/방묘창 필수!



소형 위치추적기

하네스에 소형 위치추적기를 달아두면 유실 시 **최소비용 최대효과**. 졸보일수록 반드시 달아두기

*삼성 스마트태그 :
 장점/ 갤럭시 사용자 간 호환되어 전국 추적 가능, 최대 10개월 배터리, 2만원대 가격, 하네스에 달기 용이
 단점/ 갤럭시 사용자 없는 곳에선 추적 불가능, 실시간 반영이 늦을 때도 있음

안전 산책 3종 세트



하네스 네임택

목걸이 외에도 하네스/목줄에 눈에 띄는 '네임택' 부착
 동물등록번호보다는 이름 및 보호자 연락처 기재



이중 및 안전 리드줄

졸보라면 반드시 이중 리드줄 산책. 줄 하나를 놓치거나 하네스 벗었을 때 다른 하나가 '생명줄'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X 자동리드줄은
 쉽게 끊어져
 절대 안전하지 않음



안전 H형 하네스

H형 하네스일수록 안전.
 패션 하네스는 벗겨질 가능성 매우 높음



사진 : 멍머 하네스

사진 : 몽식 하네스

이밖에 탈출 상황



차 타고 내릴 때

차 타고 내릴 때 탈출 가능성 매우 높음
100% 안전은 썬넬, 썬넬이 없을 땐 리드줄을 차에 고정하기
차문 열 때 아주 조금씩 열어 리드줄을 손에 잡고나서 내리기



문 열렸을 때

문이 열리길 호시탐탐 기다리는 동물 매우 많음
이사/택배/손님 방문 시 유실 가능성 높아짐
안전문 및 중문으로 반드시 안전 확보! 쫓보라면 방 안에 두기



오프리시

동물과 교감한다고 느꼈을 때가족이 되었다 느꼈을 때
폴링이 되는 아이라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할 건 동물입니다. 예외의 상황에서 언제든지 달아날 수 있습니다
리드줄은 안전줄이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위치추적기 실제 사례



이런 아이들은 밖에선 콜링도 쉽지 않고, 1미터 앞
에 있더라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55시간만에 아이를 찾을 수 있었던 가
장 큰 이유는 갤럭시 스마트태그 덕분이었던거 같습
니다.



강사모 실종 강아지 후기

비슷한 기능의 애플 에어 태그는 우리나라의 휴전
상황상 지도 제공이 안되어 사실상 위치 추적기로서
의 기능을 아예 하지 못합니다.

또, 정밀하게 위치추적이 되는 gps들은 대부분 배터
리 수명이 1-3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개
를 3일안에 찾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 저는 갤럭시
스마트태그를 선택했었습니다.

스마트태그는 3.9*3.9 센치 사이즈에 13g밖에 되
지 않아 초소형견들도 목줄에 달거나 하네스에 부착
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동전배터리를 쓰는데 특별
한 일이 아니면 300일 정도 쓴다고 합니다. 저는 목
줄이나 하네스를 벗고 도망가면 태그도 놓고 도망갈
까봐 별도의 collar에 태그만 달고 다녔습니다.

스마트태그는 갤럭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단점이 있
지만, 내 전화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갤럭시 폰들과도
통신해 위치를 저에게 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골짜기로 개가 숨어 들어가지 않는 이상..
100미터 반경 정도의 정확도로는 개의 위치를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저는 3일 동안 그래도 저
희가 대략 어디에 있는지는 알수 있었고, 희망을 놓
지 않고 있었습니다.

임보처 및 보호소 사용 예시



임보 준비물 :
목걸이 및 추적기



임보자님의 동의 하에
산책 시 소형추적기 상시 착용

"기르던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은 정말 **지옥에 있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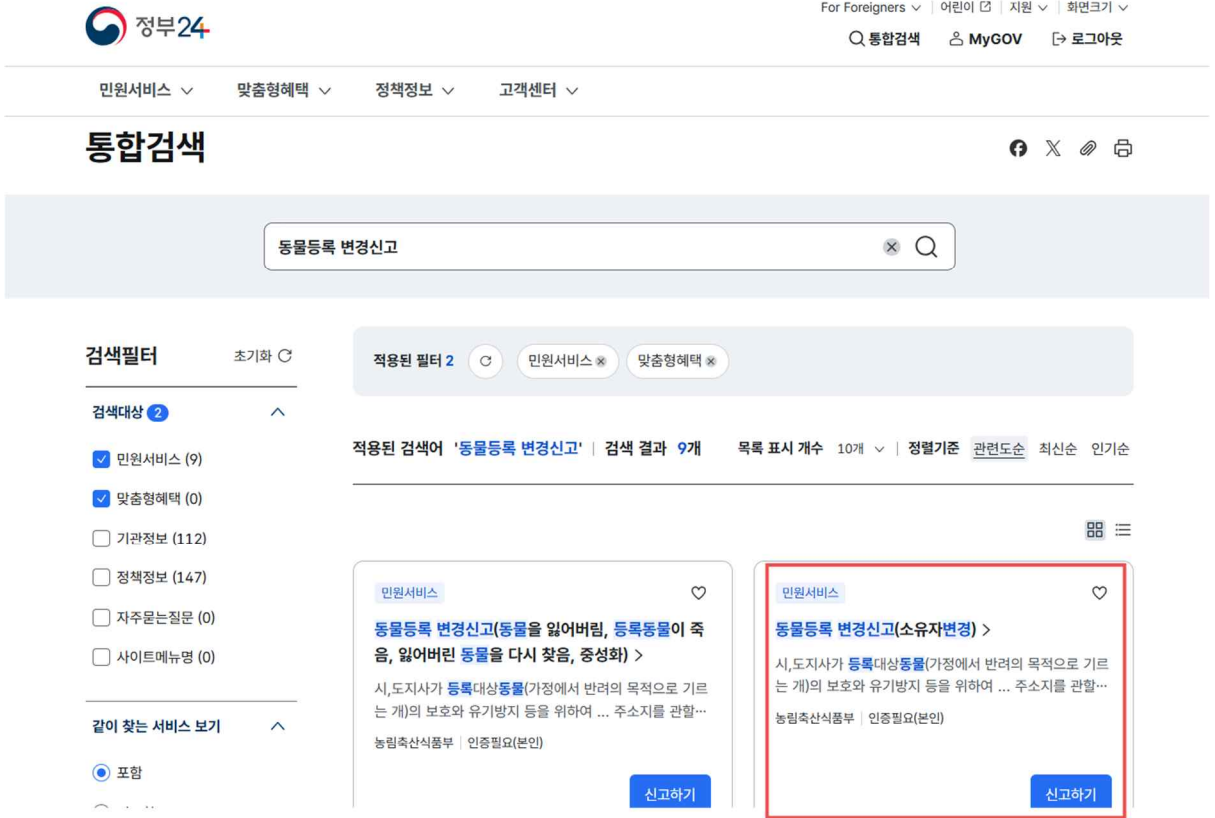
너무 충격적이라 초반에는 사태 파악도 안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강사모 실종 후기 중에서-



안전한 산책이 곧 행복한 산책
모두 안전 산책 하세요

6. 동물등록 변경신고(소유자변경) 절차 안내



<정부24를 이용한 소유자 변경 신고 절차>

- ① 신고 소유자가 먼저 변경신고 실시(신고전 동물등록번호, 이전 소유자 성명 등 준비)
- ② 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존 소유자가 변경신고
- ③ 담당 공무원이 소유자 변경 승인

*기존 소유자: 사단법인 포 해피니스

*현재소유자: 입양자님

7.기타 케어 관련 안내사항

@접종 및 예방약 안내

접종명	기초접종	접종간격	추가접종	비고
종합백신	4~5회	2~3주	연 1회	성견 입양시 초기 4,5차 진행 후 연 1회 접종
코로나장염	2~3회	2~3주	연 1회	성견 입양시 연 1회 접종
켄넬코프	2~3회	2~3주	연 1회	성견 입양시 연 1회 접종
광견병	1회	생후 3개월	연 1회	성견 입양시 연 1회 접종
신종플루	2회	2~3주	연 1회	성견 입양시 연 1회 접종
건강검진			연 1회	7세 이상의 경우 연 1회 추천
심장사상충			월 1회	먹는 약, 바르는 약 구분 / 수의사 상담 후 선택
외내부 기생충			월 1회	심장사상충약과 물인원 예방 가능 / 수의사 상담 후 선택

*클리닉에서 진행한 예방접종 및 예방약 기록을 꼭 확인하세요

*위의 기록을 담당 수의사에게 건넨 후 아이의 예방접종/예방약 일정을 확인하세요

*해당 표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담당 수의사와 상의하세요

*예방접종 후 1주일 간 스트레스(목욕, 심한운동, 여행 등)를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사상충과 외내부 기생충은 매달 예방이 필수입니다.

- 사상충 예방약과 외/내부 기생충 예방은 1개월 마다 필수입니다. 사상충 예방약은 대표적으로 먹이는 형태 (하트가드)가 있으며, 외부 기생충은 바르는 형태(프론트라인)가 있습니다. 사상충과 기생충 예방이 동시에 되는 유형으로는 먹는 형태 (넥스가드)와 바르는 형태 (레볼루션)이 있습니다. 각 제품 별 효능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수의사와 상담하세요.